

철학사

46 데이비드 흄

(휘튼 대학 아서 흄즈 박사 저)

오늘 오후에는 위대한 영국 경험주의자 세 명, 로크, 버클리, 그리고 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 경험주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국 경험주의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등장했죠. 존 로크는 1690년에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748년은 흄이 인간의 이해에 관한 탐구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존 로크의 경험적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주의, 거의 합리주의적 낙관주의에서 데이비드 흄의 회의주의로 말입니다.

사실, 1748년 이전, 그러니까 9년 전, 그가 20대 초반이었던 1739년에 이미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1711년에 태어났는데, 논문은 실제로 1736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인간 본성에 관한 논문들을 완성했는데, 이는 그의 탐구보다 훨씬 더 긴 분량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판본이 있어요. 작고 콤팩트한 파란색 두 권짜리 책이요. 제 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빌려준 한 권이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표준 학술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빌려준 게 안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죠.

에 적힌 흄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신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책을 되찾아주세요. 작년에 흄 세미나가 열렸을 때 제가 사람들에게 빌려줬거든요. 어쨌든, 앞부분에 있는 논문집이 더 길어요.

흄은 그 논문이 출판되자마자 실패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학적 명성을 얻기 위해, 즉 그가 그토록 갈망했다고 고백한 그 명성을 얻기 위해 훨씬 간략한 형태로, 약간 각색하여 다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논문들은 더 길고 내용이 풍부하며, 저는 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논문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들도 함께 참고할 것입니다.

그가 탐구에서 생략한 주제의 수를 살펴보면, 외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한 강조는 사실상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다루지만, 그의 저서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공간에 대한 지식, 시간에 대한 지식, 물질에 대한

지식, 정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로크와 버클리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형이상학적 주제들을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작, 즉 그의 저서와 탐구 모두에서 그의 초점은 분명히 인식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작품 제목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존 로크의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 처럼 말이죠.

조지 버클리, 자연 지식의 원리. 데이비드 흄, 인간 이해에 관한 탐구. 되돌려 놓자,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아니, 잠깐만요, 로크는 에세이잖아요. 맞아요. 흄은 탐구론이고요.

로크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라이프니츠가 『인간 이해에 관한 새로운 에세이』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이성주의 시대, 즉 과학적 이성의 시대에 인간 지식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과학적 지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는 저서에서 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열쇠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인간 본성에 관한 논문'인 거라고 그는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실험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인간 본성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책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당시 '실험적'이라는 단어는 가설이나 검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하려는 것은 두 가지 문제, 즉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행동과 관련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막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인간의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서술적 심리학, 그리고 그것이 윤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홉의 관점에서 인간의 믿음을 설명하려면 합리주의적 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객관적인 경험적 증거에 비례하여 믿습니다.

존 로크의 증거주의적 기준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벗어나 인간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 가야 합니다. 인간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믿음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도덕적 믿음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추론의 힘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감정의 심리학에 의해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립니다.

도덕적 감정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그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이나 증거에 기반한 정당화라기보다는 서술적인 심리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개념의 모호함이 데카르트, 로크, 스피노자, 심지어 버클리 같은 사람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와 로크가 명확하고 분명한 관념을 강조했던 시대에 관념의 모호함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관념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얼마 전 제 친구 한 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친구는 누군가가 어떤 관념에 대해 "내게는 아주 명확해"라고 말하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결국 명확성과 분명함의 기준은 개인이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홉은 데카르트와 로크가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여긴 관념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홉의 관념론을 살펴보면, 그는 명료함과 명확함 대신에 힘과 생동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과 생동감. 이것들은 인지적 기준이 아니라 정서적 기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점을 그는 조약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탐구의 1부에서 그는 이와 매우 유사한 작업을 합니다. 1부를 읽어보셨다면, 아마도 눈치채셨을 텐데, 그는 난해한 철학과 실천 철학이라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이 둘의 혼합입니다. 난해한 철학은 데카르트와 존 로크가 몰두했던 종류의 것입니다. 관념과 지식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는 논리적 정확성에 있습니다.

이는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도덕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 또는 자연 신학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도덕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외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합리적 증명에 두는 데 무력합니다.

논리적 난해함을 요구하는 철학은 오직 수학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수학에서만요. 따라서 서두, 즉 서론에서 그는 계몽주의 정신, 계몽주의적 인식론, 이성의 지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행동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 둘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철학자가 되되 인간다움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 여성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철학을 진정으로 특징짓는 것은 이성의 인위적인 요구가 아니라 인간 본성, 즉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약에서 시작하든, 카우프먼의 방식처럼 탐구에서 시작하든, 시작점은 같습니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데카르트와 로크의 인간 이성에 대한 주장을 제쳐두고, 믿음의 심리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흄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르칠 때, 마치 그가 『인간 본성 탐구』의 첫 네 부분, 즉 이성의 규칙 부분만 쓴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그가 이러한 의심에 대한 회의적 해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의심을 해소했을까요? 데카르트와 로크가 말했듯이 믿음이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심리학을 발전시킴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기억해 보세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믿음을 유보해야 합니다.

의지는 지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 흄은 사실상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의지는 지성을 앞서서는 안 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합니다. 비록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마치 세상이 완전히 실재하는 것처럼 당신이 주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소개입니다. 데카르트와 로크의 사상적 배경을 고려할 때, 흄이 지식과 믿음에 대해 논하는 부분은 예상하시겠지만, 먼저 관념론에 대한 논의로 시작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존 로크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지입니다 . 로크의 저서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차이점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로크뿐만 아니라 버클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로크를 예로 들어보죠. 로크는 관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좋습니다. 흄은 단순한 것이든 복잡한 것이든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차이점은 로크는 단순 관념, 즉 명확하고 분명한 단순 관념이 의식에 대한 최초의 입력이라고 보는 반면, 흄은 관념이 아니라 인상을 최초의 입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인상, 인상은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최초의 자극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 명확하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고 생동감 넘친다. 힘과 생동감. 너무나 강렬해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다.

너무나 생동감 넘쳐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강렬하고 활기차다. 그의 요점은 간단히 말해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상태가 발생할 때 의식을 일깨운다는 인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상이 사라지면서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인상 다음에 오는 인지 상태인데, 인상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거죠. 알겠죠? 인상의 복사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섬광이 번쩍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밝은 섬광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느끼는 것은 그 섬광의 따스함, 눈이 멀게 하는 강렬한 힘입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 그 첫 번째 충격은 ' 내가 당신을 깨웠나요?' 라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인 것입니다. 개념적인

것보다는 물리적인 충격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이러한 물리적 감각은 충격, 고통 등 어떤 감정과 연관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의 요점은, 나중에 화이트헤드의 이론에서 다루게 될 '지각에서 인과적 효능의 우선성'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흄은 그것을 인과적 효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경험에서 인지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 즉 감정적인 것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정적 또는 정서적인 것의 우선성.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번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이 아니라 반사적인 반응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되죠 .

그래서 그는 이런 의미에서 기술 심리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인상이 어떤 생각을 남기는 동시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그 인상을 기억할 때, 기억된 생각 또한 또 다른 인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또 다른 생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인상과 생각이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의 감각, 처음의 느낌이 그것을 복제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에 연관된 인상, 즉 욕망, 혐오 같은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당신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좋아하지 않았죠. 기억, 혹은 상상도 마찬가지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인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라는 단어는 이제 생각보다는 첫인상과 연관되는데,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간지럽히면 "와, 정말 짜릿하네."라고 말하죠. 즉, 인지적인 것보다는 신체적, 감정적인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로크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흄은 그 모든 것을 지칭하기 위해 '지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각.

지각은 명확하고 구별되는 관념이 아닙니다. 지각은 단지 의식의 상태일 뿐입니다. 인상에서 시작하여 관념을 포함하는 의식의 상태 말입니다.

이제 로크와의 두 번째 차이점은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로크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관념의 연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단순한 관념들을 결합하여 복잡한 관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체에 대한 관념, 관계에 대한 관념, 존재 양식에 대한 관념을 얻는가? 어떤 경우에는 우연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는 사용되는 연상 원리 세 가지를 본다. 18세기 초, 이 시기에 연상주의 심리학은 상당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상주의 심리학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흄이 제시한 연상 작용의 세 가지 원칙은 유사성, 인접성, 인과관계입니다. 즉, 반복되는 인상과 생각이 유사할 때 우리는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더 복잡한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저는 특정 물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것이 소위 먼지 없는 건식 마커 중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 제가 받는 인상은 외관과 역겨운 냄새입니다.

효과적인 용어를 얻으려면 '혐오스러운'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했습니다. 혐오스러운 냄새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죠.

지난번에 기억했던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성은 지속적인 정체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합니다. 마치 이 표식을 떠올리는 것이 정신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실체의 개념이죠. 인접성도 마찬가지고요.

사물이 서로 인접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연관 짓는 경향이 있다. 공간적으로 인접한 경우, 시간적으로 인접한 경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 관계와 시간적 관계라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즉, 공간상의 위치와 시간상의 위치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들은 특정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커가 특정한 물질인 것처럼요. 제가 이해하는 복잡한 개념들은 어떤 추상적인 보편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일반적인 표지 개념, 즉 일반적인 개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유사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과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과관계의 원리는 연상의 원리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연구 보고서 4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유형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결합, 균일한 연관성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작용하는 힘, 인과적 힘, 그가 말하는 인과적 연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균일성은 경험적 일반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A가 B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A가 B의 필연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연관 원칙은 모두 적용되지만, 세 번째 원칙에서 필연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심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적인 대상, 외부적인 대상, 신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특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 증거도 없고, 선형적 지식도 없는 인과 관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 연상 작용이라는 것도 명심하세요. 이제 그것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로, 로크와 관련하여 그는 로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후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

지금 그는 진리의 기준이나 정당화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 즉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실적 의미, 즉 어떤 것에 대한 언급 , 특정한 것에 대한 언급, 어떤 것의 명명,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경험주의자에게 의미의 기준은 언어가 어떤 원초적인, 아니, 경험적인 종류의 원초적인 관념이 아니라, 경험적인 종류의 원초적인 인상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우프만의 100페이지, 아니, 291 페이지를 보세요. 291페이지는 그의 탐구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두 문장은 조사 보고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 세 문장을 말입니다.

모든 인상, 즉 모든 감각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감각, 내적인 감각. 그는 외적 감각과 내적 감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상, 모든 감각.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든 외면에서 비롯된 것이든. 강렬하고 생생하게.

에 관해 어떤 오류에 빠지기도 쉽지 않다 . 그러므로 철학적 용어가 의미나 관념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우리는 그 용어가 어떤 인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만약 어떤 인상도 부여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의 의심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그 본질과 실재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하려는 것은 복잡한 생각을 단순한 생각들로 분석하고, 이러한 단순한 생각들이 어떤 최초의 인상에서 비롯되었는지 묻는 것 입니다 .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는 바로 이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가 필연적 연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필연적 연결에 대한 최초의 인상이 없으므로 그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원초적인 인상과도 무관한 것이므로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관념, 실재하는 보편자들도 마찬가지다. 알고 보니, 이는 정신이라는 실체, 하나의 존재에 대한 개념에도 적용된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영혼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 소망과 희망, 감정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실체, 영혼의 실체에 대한 인상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영혼은 아무런 인상 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경험적인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버클리도 왜 그걸 몰랐을까? 로크는?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는 애초에 우리가 마음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구별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개념 말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논증할 때, 그가 가진 개념은 생각하는 주체인 '나'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흄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마치 스스로를 딱 잘라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크와 버클리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랐지만, 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면, 경험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이는 개인적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그는 한 장을 통해 마음의 실체 개념을 다루고, 또 다른 장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 개념을 다룬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실체 존재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면,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다루야만 한다.

우리는 개인적 정체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는 우리가 개인적 정체성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기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찾고 있다면, '나'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있어 '나'는 경험적으로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신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손톱과 발톱을 다듬고 머리를 자르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체중을 감량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이 장기 이식, 심지어 심장 이식까지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뇌 이식을 받으면 당신이 여전히 당신일지에 대한 철학적인 공상 과학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한 흥미로운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유머라는 관점에서 보면,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나'가 아니라 '그것'이기 때문이죠. 사진 속의 자신을 보면, 영상 속의 자신을 보면, 누구나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 '나'가 아니야. 그건 객관화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아는 '나'는 소위 '성찰'을 통해 알게 된 내면의 '나'야.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나'가 바로 그 '나'였고, 느끼는 '나'는 또 다른 상황에서, 말하는 '나'는 또 다른 상황에서였죠.

내가 내면에서 경험한 '나'. 이해 되시죠? 그래서 흠에게 있어서 개인적 정체성은 바로 이 모든 생각과 인상의 흐름, 즉 감각과 성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저는 그것들을 복잡한 생각과 인상의 흐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 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그는 자아란 생각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극장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씩 차례로, 덧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들 말이죠. 정체성이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명을 덧붙이는 문장을 하나 더 엮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생각의 흐름이지, 생각들이 서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극장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단지 걸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아의 본질에 관해서라면 그는 명백히 현상주의자일 뿐, 현실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저 현상주의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자아론』 2권 말미에서 전개하는 내용이 아마도 이러한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아 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시다시피, 바로 이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이 20세기 논리적 경험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읽게 될 AJ 에이어의 책, 『언어, 진실, 논리』를 접할 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 4월이 되면 에이어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 중 일부는 "아, 4월이 되어 영국에 왔으니, 에이어의 책을 읽고 있겠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는 영국인이잖아요. 좋아요, 로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흄은 어떻게 로크를 뛰어넘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의 관념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버클리와의 어떻게 비교될까요? 버클리와 어떻게 비교되냐고요? 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그가 버클리의 명목론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버클리의 명목론에 동의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엄격한 경험주의자가 되어 모든 것을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추상적 실체나 추상적 관념에 대한 경험적 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모두 보고 느끼는 특정한 속성 에 관한 것입니다.

단어는 비슷한 사물들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관습적인 용법을 통해서만 일반적인 명칭이 된다. 우리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사물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단어로 모두 지칭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보편적인 본질에 대한 개념을 추상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점에 있어서 버클리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흄의 그러한 태도는 그의 저서 2부, 즉 공간과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한한 공간이나 무한한 시간에 대한 궁극적인 인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처럼 물질 입자의 무한 분할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만약 우리가 무한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무한 분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논의와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한한 공간적 관계와 시간적 관계뿐입니다. 공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도, 시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도, 물질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특정한 물질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 들은 단지 단순한 개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존재에 대한 개념은 없고, 단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개별적인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존재에 대한 개념도 없고, 존재에 대한 인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름의 특성을 지닌 인상을 받게 됩니다. 존재는 관념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에게 이르러 존재론적 논증, 즉 완전한 존재라는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중요해질 것입니다.

음, 존재가 개념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 어떤 것도 서술할 수 없죠. 칸트가 말했듯이, 그것은 적절한 술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증명에는 그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흄의 수정된 관념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이후의 내용들은 그저 마무리 작업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그가 지식과 믿음, 형이상학적 및 신학적 주제에 대해 다루는 나머지 부분들은 말이죠.

그의 핵심 질문은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근본적인 질문은 진실성보다는 의미, 즉 경험적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질문하고, 그에 대해 논평하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경험주의자라면 의미에 대한 경험주의적 기준이 자연스럽게 명목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단어가 실제로 관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제 질문 들으셨어요, 존? 의미에 대한 경험주의적 기준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명목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

네, 경험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는 한 그렇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제 질문은, 사실, 단어가 관념이라는 생각은 언제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생각을 비판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단어가 관념이라는 생각, 혹은 그 외의 다른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네,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음, 제 생각에 비트겐슈타인도 명목론자입니다. 추상적인 관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로크 외에 명목론자가 아닌 다른 경험주의자가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말하려는 요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로크는 경험주의와 개념주의의 논리적 양립성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경험주의자는 항상 명목론자여야 할까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음, 제 생각에는 의미의 경험적 기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의미의 경험적 기준이 언제쯤 최종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경험주의에 더 많은 논리적 근거를 열어주게 된 걸까요? 1940년대, 혹은 어느 정도는 1950년대에 도전을 받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도전은 개념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을 가진 경험주의자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충분히 경험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요점이었다.

다른 게임들을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는 언어가 단지 개별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문화적 활동이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온갖 일들을 행하는 수단입니다.

언어 문화에서 그런 점을 볼 수 있죠.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비판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한 기준은 어떤 사실적 진술이든 경험적 의미를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 진술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가요? 명백히 그렇듯이, 그것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적 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은 물리서서 “아니요, 이것은 우리 측의 방법론적 제약입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입장을 바꿔 경험적 참조만이 유일한 의미의 종류인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추상적 관념의 전달자가 심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로크의 입장이 충분히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크는 명확하고 분명한 관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어떤 사물의 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셔츠의 파란색 같은 심상 말이죠. 하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특정한 속성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은 비경험적 사고 , 즉 추상적 인 사고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언어가 하는 게임 중 하나는 추상적 사고 라고 할 수 있죠 . 이는 수학이나 사전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실적인 진술이 아니라 분석적인 진술을 하는 그런 추상적 사고 방식이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또 다른 종류의 추상적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언어가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지 않고도 전체적인 일반적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특정한 대상을 묘사함으로써 , 때로는 단순히 단어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 상징주의. 음, 그건 분명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20세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은 이것이 도덕적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종교적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1950년대의 주요 쟁점이었죠.

이제 다음 단계인 지식과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해 지식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즉,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확인하는 명제들로 말입니다.

명제는 주어와 술어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항, 즉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 따라서 명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좁은 말한다.

그 이후로 알려진 두 가지 유형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입니다. 분석 명제는 단순히 관념들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념들의 논리적 관계 .

그래서 그러한 명제들이 참이면, 그것들을 논리적 진리라고 부릅니다. 논리적 진리. 종합은 사실에 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참인 것들을 사실적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관념들의 논리적 관계는 관념 자체와 관련이 있지, 관념이 나타내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신남은 미혼 남성이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미혼 남성'이라는 뜻의 'bachelor'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용어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두 용어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정의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수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라는 숫자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단순히 사용된 언어, 또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에 아직 미혼 남성이 남아 있든 없든, 모든 미혼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미혼 남성은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좁은 관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난해한 철학과 난해한 추론이 가치를 지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만 말합니다.

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경우가 가능한 사실 진술에 있습니다. 미혼 남성이 기혼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행하지 않은 독신 남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진술의 반대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명제는 반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의미에 대한 경험적 기준이 작용하는 질문은 사실에 대한 지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그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그의 논증은 이 연구의 네 번째 중요한 부분에서 전개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걸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